

90.3.24

'남자사원만 모집' 광고낸 4개 업체

벌금 1백만원씩 약식기소

찰, 남녀고용평등법 첫 적용

에서 남자사원만을 모집
은 위법이라는 검찰의 결
려졌다.
지검 형사2부 홍경식 검사
채용대상을 남자로 제한
입사원 모집광고를 낸 신
동아제약·대한교육보험·
정보험 등 4개 회사 법인
이사에 대해 남녀고용평
등법을 적용, 각각 벌금
씩에 약식기소했다.

러한 직종이 일반적으로 여성에
게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
모집대상을 남성으로 한정, 여성
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
않은 혐의가 인정된다"고 밝혔다.
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"사
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
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

기회를 주어야 한다"고 규정돼
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백50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
있다.

됐다.

신동아·대한교육·정보·정보

여직원 결혼 면직 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어긋나 30·충남 지방노동위

전=손규성 기자】결혼이 여
직원의 사직조건으로 단체협약에
시돼 있어도 이를 근거로 사업
가 면직시킨 것은 위법이라는
결정이 나왔다.
충남지방노동위(위원장 이재
는 29일 전 대전대학교 부속
강병원 물리치료사 최임순(30·
씨)가 낸 '위법 또는 부당한
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취소명령
유 의결요청'을 심의, 결혼을
유로 여성노동자에게 제한을
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·남
녀고용평등법·근로기준법 등에
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변경돼
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.
충남노동위의 이날 결정은 지
23일 '법원이 사원모집 때 여
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회
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
반한다며 약식기소한 것과 함께
성노동자의 동등한 지위를 재
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.

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9일 전 대전대학교 부속 강병원 물리치료사 최임순(30·씨)가 낸 '위법 또는 부당한 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취소명령 유 의결요청'을 심의, 결혼을 유로 여성노동자에게 제한을 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·남녀고용평등법·근로기준법 등에 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변경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.

충남노동위의 이날 결정은 지 23일 '법원이 사원모집 때 여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회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다며 약식기소한 것과 함께 성노동자의 동등한 지위를 재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.